

이태준 소설의 ‘이웃’과 타자성*

허진혁 **

-차 례-

1. 들어가며
2. ‘이웃’과의 마주침
3. 구성된 이상향의 요청
4. 나오며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입(NRF-2023S1A5B5A17085010)

**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강사

[국문초록]

이태준 문학의 내적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지향 등을 제시하는 논의들에서 전제되는 것은 이해 가능하고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동류 인간’으로서의 타자이다. 그러나 이태준의 소설에서는 의미화할 수 없는 ‘이웃’으로서의 타자의 형상이 증상처럼 나타난다. 친숙하면서도 낯선 ‘이웃’의 섬뜩함은 근본적인 타자성을 지시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마주할 수 없으며, 의미화를 시도하면서 안정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이웃’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이태준 소설의 이상향은 작가가 추구하는 초월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웃’으로서의 타자와의 조우를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요청되는 구성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이태준, 타자, 이웃, 괴물성, 섬뜩함, 환상, 이상적 대상

1. 들어가며

이태준은 1925년 『조선문단』에 단편 「오몽녀」로 입선, 같은 해 『시대일보』에 이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문학적 활동만큼이나 많은 작품을 남긴 이태준의 문학 세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단편과 장편, 해방 그리고 월북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이태준 문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단편 소설의 스타일리스트로 높게 평가받거나,¹⁾ 사상성의 결여에 대해 비판받기도 하였다.²⁾ 이러한 당대의 평가는 이후의 논의들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반면,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는 단편소설에 대한 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계몽성이나 통속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³⁾ 다른 한편으로,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더불어 해방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과 월북 이후 발표된 작품들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⁴⁾

최근의 논의들은 부분적 연구들에서 단절된 지점들을 극복 및 보완하면서,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내적 논리를 밝혀내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이태준 문학 전반에 대한 핵심 요소로 공동체주의에 대한 지향,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추구 등을 제시한다는 점이다.⁵⁾ 그 원인은 주로 사상적 영향에 의

-
- 1) 대표적으로 김기림, 「스타일리스트 이태준 씨를 논함」, 『조선일보』, 1933.06.25-27. 조형래는 김기림의 논의로부터 작가 이태준에 대한 통념 중 하나가 정초되었다고 제시한다. 조형래, 「단편, 스타일, 사상 - 이태준 단편 소설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역사적 검토」, 『한국문예창작』 20(3), 한국문예창작학회, 2021, 8면.
 - 2) 대표적으로 백철, 「문장과 사상성의 검토 -내가 쓰는 작가 이태준론-」, 『동아일보』, 1938.02.15-16.
 - 3) 김택호, 「계몽성과 통속성이라는 핵심어 근처에 머물기 -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사 검토」,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참조.
 - 4) 김준현, 「해방이라는 한국문학연구의 ‘경계’와 이태준 - 해방 이후 이태준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참조.
 - 5) 김택호,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 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향성에 선행하는 현실 인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한 참조점은 타자성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이다. 이상적 공동체 등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이 상호 이해 가능하며 온전한 관계를 성취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태준 소설에 대해서는 작가가 타자성 인식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하거나⁶⁾ 민중이라는 타자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본 논의들이 타자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⁷⁾ 또는 타자로부터 주체성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개진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논의들에서 타자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전제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태준 소설에서의 타자는 이처럼 이해 가능한 존재로만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태준의 소설들 중에서는 불가해한 타자, 즉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읽어낼 수 있다. 이태준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연구사적 흐름에서,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접근은 이태준 소설의 보다 근본적인 내적 논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태준의 초기 소설에서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구현되는 이상적 공동체는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불가능성을 전제하는 동시에 그러한 불가능성을 가리면서 가능한 것처럼 구조화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이태준 문학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이웃’ 개념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해 이태준 소설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이태준 소설 중에서 불가해한 ‘이웃’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웃’으로서의 타자 인식이 선행될 때, 이태준의 소설 전반에서

6) 김진규, 「이태준 단편소설 속 타자성 인식의 한계-「달밤」·「손거부」·「장마」·「쾌강랭」·「석양」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참조.

7) 박수현, 「이태준의 민중 형상화 방식과 자아상-해방 전 단편소설과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참조.

8) 이민정, 「이태준 소설의 토포필리아와 타자성 고찰 -1930년대~194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참조.

나타나는 이상적 대상과 이에 대한 지향성이 구조화되는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이웃’과의 마주침

일반적으로 이태준 소설에서의 타자 인식은 타자를 일종의 ‘동류 인간’으로 전제한다. 이태준의 초기 단편들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현실의 한계에 의해 방해받고 성취되지 못한다. 이들의 소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아이러니는 이태준의 단편 특유의 정서적 기능을 이끌어낸다.⁹⁾ 기존의 논의들에서 이들을 향한 서술자 또는 작가의 태도를 연민이나 애수 등의 정서로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동일한 인간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타인을 나와 동일한 사람, 사회적 질서 안에서 의미화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고 공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공존을 조정하는 비인격적 규칙들의 집합”으로서의 상징적 타자에 의해서이다.¹⁰⁾ 물론 이태준의 단편들에서 인물에 대한 연민이나 애수의 정서가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중 일부에서는 이처럼 안정적으로 구현된 타자와의 관계를 비틀어버리는 문제적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면들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근본적인 타자성을 마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태준 소설에 나타난 타자성과 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타자의 불가해한 심연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이웃’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할 때 가능하다.

9) 서영채, 「두 개의 근대성과 처사 의식 - 이태준의 작가 의식」, 『상허학보』 1, 상허학회, 1993 참조.

10) 지젝은 타자의 상상적, 상징적, 실재적 양상을 제시한다. 상상적 타자는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 일종의 “동류 인간”들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사회적 실존을 구성하는 상징적 타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가능한 사물, “무자비한 동반자””인 실재적 타자가 있다. 타자의 세 가지 차원은 ‘나의 유사물’과 같은 타자에게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옮김,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 『이웃』, b, 2010, 229면 참조.

‘이웃’을 본격적인 이론적 개념으로 논의한 인물은 레비나스이다. 일반적으로 타자는 동일화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온전한 이해가 가능한 존재로 파악되었다. 이와 달리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타자는 규정 가능한 지평을 넘어선다. 즉, 레비나스의 타자는 절대적이고 외재적인 대상이다. 인격적 관계 설정이 가능한 타인 역시 절대적 타자의 수준에 머문다. 주체는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타인이 이웃이 되는 것은, 나를 소환하고 나에게 요구하며 나를 요청하는 얼굴을 통해 나의 책임을 바로 이렇게 불러내는 가운데서다.”¹¹⁾ ‘이웃’의 얼굴과의 조우는 주체에게 무한한 책임을 불러일으키며 윤리적인 행동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레비나스에게 있어서 ‘이웃’의 얼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증”할 수 있으며, “인증”된 대상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얼굴은 타자의 모순이나 결여를 가리는 일종의 외관에 불과하다. 종교적 명제인 ‘이웃 사랑’이 오히려 주체를 괴롭게 하며 죄책감까지 느끼게 한다는 프로이트의 논의¹³⁾를 거쳐, 이질적이며 주체를 위협하는 ‘이웃’의 파괴적인 속성을 강조한 라캉의 논의¹⁴⁾를 경유하면서¹⁵⁾ ‘이웃’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 11) 에마뉘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 옮김, 『타자성과 초월』, 그린비, 2020, 48면.
 12) 에마뉘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299면.
 13) 프로이트는 이웃 사랑에 관해, 문명 사회에서 공동체의 유대와 만족을 위해 요구되는 이상적인 것이며, 인간의 공격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본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285-295면 참조.
 14) “Perhaps the meaning of the love of one’s neighbor that could give me the true direction is to be found here. To that end, however, one would have to know how confront the fact that my neighbor’s *jouissance*, his harmful, malignant *jouissance*, is that which poses a problem of my love.”(아마도 나에게 진정한 방향을 줄 수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 이웃의 주이상스, 해롭고 악한 주이상스가 내 사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알아야 할 것이다. 번역은 인용자) Jacques Lacan,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nis Porter,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New York: Routledge, 1992, p.187.
 15) 프로이트의 논의에서 지시하는 이웃은 공동체의 일원에 가깝다. 나와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요구를 취소할 수 있는 ‘동포’이며 공동체를

환대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다. “타자의 얼굴과 마주치는 사건은 타자의 주체성의 심연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타자의 심연을 마주하는 것은 얼굴의 외관이 아닌 “단순한 안면 경련이나 찡그림” 또는 “얼굴을 완전히 상실한 괴물성”과 조우하는 것이다.¹⁶⁾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이태준 소설의 타자성은 동류 인간으로서의 상상적 타자, 이러한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적 타자로서의 사회적 틀, 괴물 같은 실재적 타자로서의 ‘이웃’을 통해 접근해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태준의 소설에서는 ‘이웃’으로의 타자가 지닌 근본적인 타자성을 마주하는 장면이 일종의 증상처럼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태준의 대표작인 「달밤」(『중앙』, 1933.11.)을 떠올려볼 수 있다. ‘나’는 “아무리 오래 지껄이고 나도 웃음밖에는 남는 것이 없어 기분이 거뜨해지는”¹⁷⁾ ‘황수건’과의 대화를 즐긴다. ‘나’와 ‘황수건’의 소통은 그의 모습이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유지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달밤」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낙천적인 형상으로 의미화되어 있는 ‘황수건’에게서 낯선 모습을 발견한다.

어제다. 문안에 들어갔다 늦어서 나오는데 불빛 없는 성북동 길 위에는 밝은 달빛이 길을 깔 듯하였다.

그런데 포도원계를 올라오노라니까 누가 맑지도 못한 목청으로
“사…… 케…… 와 나…… 미다카 다메이 …… 키…… 카…….”

를 부르며 큰길에 좁다는 듯이 휘적거리며 내려왔다. 보니까 수건이 같았다.
나는

“수건인가?”

하고 아는 체하려다 그가 나를 보면 무안해할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획 길

형성하는 ‘나와 유사한 자들’이다. 그러나 라캉은 이러한 질서를 붕괴하는 파괴적 주이상스의 이웃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다. 그래야만 “이러한 타자를 나의 유사물로 볼 것인지, 혹은 나의 유사물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악의 대리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비로소 출현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곧 윤리적 차원과 이어진다. 라캉의 ‘이웃’에 대한 보충적인 논의는 백상현, 『라캉의 인간학』, 위고, 2017, 251-264면 참조.

16) 지젝, 위의 글, 234-235면 참조.

17) 이태준, 상허학회 편, 「달밤」, 『달밤 외 - 이태준 전집 1』, 소명출판, 2015, 275면. 이하 작품 인용은 제목, 전집의 권수, 해당 면수만 표기.

아래로 내려서 나무 그늘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길은 보지도 않고 달만 쳐다보며, 노래는 그 이상은 외우지도 못하는 듯
 첫 줄 한 줄만 되풀이하면서 전에는 본 적이 없었는데 담배를 다 껍뻍 빨면서
 지나갔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¹⁸⁾

여기서 ‘나’는 그의 무안함을 염려하는 듯하지만, 그를 마주할 때 무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오히려 ‘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낯선 ‘황수건’과의 마주침을 피한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황수건’의 모습은 ‘나’에게 있어서 의미화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나’는 아는 체를 하지 못하며 몸을 감추고 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다시 말해서, 그와의 거리감을 획득하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달밤은 그에게도 유감한 듯하였다”라는 마지막 문장의 ‘듯’과 같이, ‘나’는 자신의 의미망 안에서 ‘황수건’에 대해 추측해볼 뿐이다.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처럼 거리감을 형성하려는 작업은 이태준의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구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손거부」(『신동아』, 1935.11.)에서는 낯선 타자의 모습이 보다 폭력적으로 묘사된다. 여기저기 나서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인사를 놓치지 않는 ‘손거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공동체의 친숙한 ‘이웃’이다. ‘나’는 그와 처음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가 문패를 부탁하러 온 일 이후로 가까워진다. 「달밤」의 ‘나’와 ‘황수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손거부」의 ‘나’ 역시 ‘손거부’의 조금은 어리숙한 모습이 우습기도 하지만 그에게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으며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나’는 ‘이웃’의 낯선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그 후 얼마 안 있어서다. 아침에 산보삼아 뒷산으로 올라갔더니 미륵당 쪽 골짜구니에서 웬 울음소리가 났다. 아이의 울음소리인데 업살하는 것을 보아 때를 맞는 소리였다. 슬금슬금 그쪽으로 가까이 가보니 손 서방이 저희 큰아들 애를 끌고 올라와서 때리는 것이었다.

18) 「달밤」, 1권, 284면.

“이 이놈 새끼…… 애빈 먹을 걸 못 먹구 가리키…… 가리켜 보는데 이놈 새끼 뭐 학교엔 안 가구 진고개루만 싸댕겨…….”

목에 핏대가 일어난 손 서방은 회초리라기보다 몽둥이에 가까운 나무로 아들이 못 달아나게 두 손을 묶어 쥐고 등덜미를 내려패었다.¹⁹⁾

‘나’는 소리나는 쪽으로 가까이 가보지만, 앞에 나서 마주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거리감을 지닌 채로, 아이를 때리는 ‘손거부’의 낯선 모습을 보고 있을 뿐이다. ‘나’는 ‘손거부’의 모습을 의미화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주할 수 없는 것이다. 「달밤」에서 ‘나’의 추측처럼, 「손거부」의 ‘나’는 아이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의미화를 위한 내용을 마련한다. 따라서 ‘나’의 일종의 ‘옛보기’는 ‘손거부’와 그의 가족의 사정을 모른척 해주고, 그들을 배려해주는 것이 아니라,²⁰⁾ 친숙한 ‘이웃’의 낯선 모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대성이가 산에서 매 맞던 것을 보았고 그 학교 선생에게서 들은 말도 있어서 손 서방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아나 그냥 곧이듣는 체 할 수밖에 없었다.²¹⁾

낯선 모습의 ‘이웃’을 본 이후, ‘나’는 전과 마찬가지로 ‘손거부’의 문패를 써준다. 두 사람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그의 낯선 모습을 본 이후의 관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동일한 장면의 반복 사이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차이가 지시하는 것은 ‘이웃’의 낯설고 섬뜩한 측면, ‘괴물성’으로 표현되는 타자의 근본적인 심연이다. ‘나’가 모른척하는 것은 바로 ‘이웃’의 괴물성인 것이다. 이를 가려야 그들과의 안정된 관계, 사회적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분명하게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인식하는 장면은 「토끼 이야기」(『문장』, 1941.2.)에서 등장한다. 「토끼 이야기」에 대한 기존의 논

19) 「손거부」, 1권, 335-336면.

20) 조형래, 「이태준의 성북동: 이태준의 단편소설 및 『무서록』에 나타난 ‘교외’와 ‘구석진 곳’의 의미에 대하여」,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149-152면 참조.

21) 「손거부」, 1권, 338면.

이들은 이태준의 작가 의식과 관련된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식민지 현실과 관련하여 예술가로서의 자기상이 붕괴되는 양상으로 접근하거나,²²⁾ 비판적인 역사의식을 고수하려 했음을 제시한다.²³⁾ 문제가 되는 장면, 즉 아내가 토끼를 잡은 모습을 마주하는 장면과 관련해서도 폭력적인 시대의 압력을 읽어내는데 집중한다.²⁴⁾ 유의미한 논의 들임은 분명하지만, 이 장면은 이태준의 근본적인 타자 인식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다.

“여보? 어디 계속?”

하는 아내의 찾는 소리가 난다. 내다보니 얼굴이 종잇장처럼 해쓱해진 아내는 두 손이 피투성이다.

“응!”

“물 좀 떠줘요.”

“웬 피유?”

아내의 표정을 상실한 얼굴은 억지로 쥘기어 웃음을 짓는다. 피투성이 두 손은 부들부들 떠다. 현의 아내는 식칼을 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토끼 가죽을 두 마리나 벗겨 놓은 것이다. 현은 머리칼이 쭈뼛 솟았다.

“당신더러 누가 지금 이런 짓 허래우?”

“안 힘 어떻게허우? 태준은 뭐 지냈수? 어서 손 씻게 물 좀 떠놔요.”

하고 아내는 토끼털과 선지피가 엉킨 두 손을 짹 벌려 내어민다. 현의 머릿속은 불현듯,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 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이 지나친다. 콧날이 찌르르 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피투성이의 짹 벌린 열 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

22) 우정덕, 「이태준 작품에 드러난 자기상과 그 결락 - 수필집 『무서록』과 ‘심경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2011, 184-186면 참조.

23) 공종구는 이태준이 시대 의식을 고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의 압력에 따라 작가의 민족의식이 내면적으로 잠복해있다는 논의를 펼친다. 공종구, 「이태준의 지식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389-392면 참조.

24) “아내의 변화는 실로 충격적인 것으로 그것은 시대의 압력이 그녀에게 강제한 것이다. 현의 아내를 변화시킨 것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녀의 실존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현실의 힘이다. 그 힘은 생활에 대한 압력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식민지 정치 권력의 힘이다.” 이도연, 「이태준 단편 연구」,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261-262면.

는 것이 아니었다. 현은 필씩 주저앉을 듯이 먼 산마루를 쳐다보았다. 산마루엔 구름만 허영게 떠 있었다.²⁵⁾

‘현’은 직접 토끼 가죽을 벗긴 아내와 마주친다. 정확히 말하면, “억지로 찡기어 웃음을 짓는” 아내의 “표정을 상실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아내의 얼굴을 보고, ‘현’은 “머리카락이 쭈뼛 솟았다.” “답의 흘려 뜬 죽은 눈이 무서워 신문지로 덮어 놓고야 썰던”²⁶⁾ 친숙한 모습과는 다른 아내로부터 일종의 ‘섬뜩함’²⁷⁾을 느낀 것이다. 이러한 섬뜩함은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심연에 대한 ‘현’의 정서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손을 씻게 물을 달라는 아내의 요구에 대해서, ‘현’은 물이 아닌 진정으로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리라 여기지만 그 답을 알 수 없다. 자신과 같은 ‘동류 인간’으로서의 아내의 모습에서 불가해한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마주한 것이다.

이처럼 이태준 소설에서는 ‘이웃’으로서의 타자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러한 장면들은 일반적으로 이상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다뤄진 이태준의 다른 소설들에 비하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증상처럼 튀어나온 이 장면들을 오히려 이태준 소설의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바라본다면, 작가의 문학 전반에 자리한 타자 인식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이태준 소설에서 타자와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는 양상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진다.

3. 구성된 이상향의 요청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태준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타자는 근본적인

25) 「토끼 이야기」, 『돌다리 외 - 이태준 전집 2』, 210-211면.

26) 「토끼 이야기」, 2권, 204면.

27) ‘섬뜩함’은 익숙하고 친숙한 것으로부터 발견되는 낯설음과 두려움을 의미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두려운 낯설음」,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20, 401-452면 참조. 이때 섬뜩함은 타자의 심연에 자리한 불가해한 괴물성을 마주할 때 주체가 느끼는 정서이다.

불가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타자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이태준의 소설들은 ‘이웃’의 심연을 가리며 안정된 사회적 질서로서의 타자를 구현하는 문학적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타자를 “최소한이나마 견딜 수 있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징적 질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주체가 타자를 “정상적인 동류 인간”으로 “순치”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상징적 질서로서의 타자가 기능하지 않을 때 “친한 이웃은 괴물 같은 사물에 부합할 것이다.”²⁸⁾

따라서 이태준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이상적 대상들은 ‘이웃’의 괴물성을 가리고,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현실을 문학적으로 구성해 내기 위해 요청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특성은 이태준의 초기 작품부터 해방 공간과 그 이후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문학적 수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해방, 그 이후 새롭게 현실의 참조점을 구성해야 하는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가 특유의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불안을 가리고, 안정된 사회적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망을 일관된 방식으로 추구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이태준의 초기 단편부터 나타나는 이상적 대상에 대한 추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등단작인 「오몽녀」에서, “별빛 푸른 북쪽 하늘”³⁰⁾로 달아나는 ‘오몽녀’의 모습은 그녀가 바라는 대상이 ‘저 너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다른 초기 소설인 「구장의 처」(『반도산업』, 1926.1.)는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소설 내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28) 지책, 위의 글, 230면.

29) 이웃의 “비인간적 성격”을 길들이거나 동류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변모 시키는 시도는 바꿔 말하면 이웃의 근접성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책은 이러한 방식을 일종의 “교양civility”과 연결짓는다. 여기서 교양의 요점은 형식적 측면, 즉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척하기”에 의해 지탱된다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23-40면 참조.

30) 「오몽녀」, 1권, 22면.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신인의 입장에서, 편지를 통해 전해진 이상적 공간은 철저하게 ‘저 너머’의 것이다. 이처럼 이상적 대상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저 너머’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태준의 초기 단편들 대부분은 이상적 대상에 대한 추구와 좌절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대상은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온전한 관계의 성취, 이상적 공동체 등으로 구현된다. 이를 향한 욕망은 금지의 작인에 의해 도달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된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봄」(『동방평론』, 1932.4.)과 「꽃나무는 심어 놓고」(『신동아』, 1933.3.) 등은 고향이라는 이상향을 다룬다. 인물들은 식민지 현실의 고통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적 한계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들에게는 부정적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고향만이 관념적으로만 ‘저 너머’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행복」(『학생』, 1929.3.)의 ‘황 영감’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상경하지만, 상봉의 순간 아들이 체포되면서 기대했던 ‘행복’을 이룰 수 없게 된다.³¹⁾ 「실낙원 이야기」(『동방평론』, 1932.7.)에서 ‘나’는 ‘P촌’에서 자신의 ‘낙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지만, 현실의 한계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³²⁾ 대상에 대한 욕망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애물들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욕망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지속될 수 있게 만든다. 그들이 욕망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이태준 소설에서의 고향이나 이상적 공동체 등 온전한 완결성을 갖춘 이상적 대상은 그 자체로 실현한다기보다는, 저 너머에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상은 현실적 한계로 인해 도달

31) “이 황 영감이 눈을 씻으며 만석을 만나 보게 되는, 즉 그가 행복된 새 천지에 첫걸음을 들여놓으려는 이 순간이었었다. / 남모르는 클클한 정이 가슴속에 가득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손을 잡아 보기도 전에 이 두 사람 사이를 썩 가로막으며 나서는 사람이 있다.” 「행복」, 1권, 44면.

32) “나는 P촌을 발견하였을 때, P촌에 있던 K교사가 그만두고 그 자리가 나에게 물려질 때, 나의 기쁨은 형언할 수 없었다. 나 혼자 유토피아에 든 듯했었다.” “나는 P촌과 같은 낙원을 잃어버린 이상, 내 한 입도 건사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철저한 무능자인 조선 청년의 하나인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다.” 「실낙원 이야기」, 1권, 189, 198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으로 도달 불가능하다. 타자와의 공존이 가능한 이상적 공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지향성이 가능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불가해한 ‘이웃’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이다.

이러한 접근은 해방과 그 이후 이태준의 작품들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공존을 보증하는 질서가 부재한 해방 공간을 전후하여 새로운 지배적 담론에 의해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작가 나름의 답을 읽어낼 수 있다. 근본적인 괴물성, 다시 말해 초과이자 과잉의 지점이 가려진 인물을 구성하는 것은 이상적 공동체를 향한 추구와 같은 선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편 『사상의 월야』의 경우, 일종의 ‘전사前史 쓰기’로서 상징적 질서에 포섭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비인격적 규칙들의 집합’에 의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바꿔 말하면, 증상처럼 튀어나왔던 ‘이웃’의 타자성을 보다 공고하게 가리기 위해 일관된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³³⁾

이처럼 일관된 세계를 구축하려는 작업은 이태준 문학에서 드러나는 ‘고전예의 지향’에 대한 재정립을 가능하게 한다. 「해방 전후」(『문학』,

33) 특히, 『사상의 월야』는 『매일신보』에 발표된 신문 연재본(1941년 3월 4일~1942년 7월 5일)과 개작된 단행본 사이의 차이를 통해 상징적 틀로서의 환상의 이중적 측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연재본에서 ‘송빈’은 ‘과학’과 근대화될 중심으로 주체화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달리 해방 후 1946년에 발행된 단행본에서는 조선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이태준의 적극적인 저항 의식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조영실, 「근대 주체의 위치와 변용 양상」, 『구보학보』 6, 구보학회, 2010 참조). “어떤 공동체가 현실이 환상에 의해 통제되거나 구조화되어 있는것으로 경험하는 한 그것은 자체의 내속적 불가능성, 그것의 한가운데 있는 적대성을 부인해야 한다.” 이러한 부인은 “유령적 환영”으로, 즉 물화된 적대의 대상으로 구체화된다. 『사상의 월야』에서 어떤 저항 의식을 읽어낸다면,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할 때 선명해질 수 있다. 현실을 구성하는 틀로서의 “상징적 픽션”과 그 이면의 “유령적 환영”이 상호 의존하면서 타자의 불가능성을 가리고 그 틀이 적절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상징적 틀로서 환상의 이중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카페』, 새물결, 2013, 1212-1222면 참조).

1946.8.)의 ‘김직원’은 고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현’은 그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두 사람은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사상적 갈등으로 인해 대립하며 ‘김직원’은 결국 ‘현’을 떠나게 된다.³⁴⁾ 떠나가는 ‘김직원’을 보면서, ‘현’은 사라진 청나라를 그리워하다가 삶을 마감한 학자 ‘왕국유’와 그를 겹쳐본다. ‘현’은 삶을 이어나가야 하는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국유’에 대한 우러러봄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이상적 가치에 대한 추구는 김직원을 통해서, 보다 정확히는 “아득히 가라앉아 가는” 그의 뒷모습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연암을 떠올리는 「먼지」(『문학예술』, 1950.3.)의 한 장면³⁵⁾ 역시 「해방 전후」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먼지」의 ‘한피 선생’은 고서를 수집하는 전통지향적 경향성을 지닌 인물이다. ‘한피 선생’을 통해서 사회주의 현실과 전통지향적 미학관의 연결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³⁶⁾ 그러한 미학적 실천은 결국 하나의 닫힌 원을 그리려는 시도라는 접근이 가능하다. ‘한피 선생’이 의미화 또는 서사화하려는 민족의 역사는 곧 분단 현실이나 이념의 대립 등 스스로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 위에서 비록 ‘먼지’처럼 취약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형상화하려는 하나의 환상적 ‘유사물’이다. 덧붙여서, 「먼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려지는 ‘한피 선생’의 죽음은 그가 어떤 새로운 기회를 상실했다기보다는, 「해방 전후」의 마지막 장면에서 사라지는 ‘김직원’의 뒷모습과 마찬가지로 그의 이상을 도달 불가능한 영역에 남겨놓음으로써 유지시키려는

34) “일제시대에 그처럼 구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내 부지해 온 상투 그대로, ‘대한’을 찾아 삼팔선을 모험해 한양성(漢陽城)에 올라왔다가 오늘, 이 세계사의 대사로 속에 한 조각 티끌처럼 아득히 가라앉아 가는 김직원의 표표한 뒷모양을 바라볼 때, 현은 왕국유의 애뜻한 최후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방 전후』, 『사상의 월야·해방 전후 - 이태준 전집 3』, 310면.

35) “한피 선생 자신도 자기가 수집한 책에서 연암의 것을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가장 많이 읽었고, 『완당집』은 활판본을 통하여서나마 그 호한한 전집을 거의 섭렵하였다. 이번엔 고관 『완당집』을 놓치고 만 애석함은 전적 수집벽(蒐集癖)에 서보다도 자기가 완당을 숭상해온 후학(後學)의 도리에서 더하였던 것이다.” 「먼지」, 『농도·첫 전투·먼지 - 이태준 전집 4』, 300면.

36) 조영추, 「정치적 유평피아와 전통지향적 미학의 이합(離合)관계: 이태준의 소련·중국 기행문과 소설 「먼지」 겹쳐 읽기」, 『민족문화사연구』 71,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참조.

서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분이는 선뜻 남편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선다. 역쇠가 좋지만 할 뿐 아니라, 이렇듯 든든하고 우뚝 솟아 보여서 바라보기 흐뭇하기는 처음이다.

“아, 어서 조선이 좋은 나라가 됐으면!”

“되구 말구! 되구 말구!”

달은 가지 않고 썩는듯 고요한데 어느 동네에서인지는 자지들도 않고 해방된 농군들이 호적소리며 징소리며 풍년을 부르는 듯한 농악소리가 은은히 울려왔다.³⁷⁾

이러한 흐름은 장편 『농토』(『삼성문화사』, 1948.8.)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해방기 북한의 토지 개혁과 관련된 낙관주의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거나³⁸⁾ “서사적 훼손도 없는 총체적이고 완결적인 세계를 제시하고자” 했으나 모순과 균열을 함축하고 있음을 읽어내는 논의³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농토』 또한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동체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이태준에게 있어 토지 개혁은 비록 이를 적절하게 형상화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초기 단편에서 추구한 이상촌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작가 스스로가 북로당에 의해 주도된 이상촌 건설의 허위성”을 실감하였으나 이를 드러낼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당이 요구하는 도식에 기계적으로 작품을 넣을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먼지」의 실학 사상은 “당대 역사적 모순의 해결”이자 “이태준이 작품 활동 전반에 걸쳐 지니고 있던 이상주의적 지향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⁴⁰⁾

37) 『농토』, 4권, 179면.

38) 양윤모,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설적 형상화: 이태준의 『농토』를 대상으로」, 『한국융합인문학』 9(3), 한국융합인문학회, 2021 참조.

39) 임세화, 「해방기 북한 토지개혁 소설의 욕망과 농민해방 -토지개혁 초기 소설들에 기입된 서사적 공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221면.

40) 장성규, 위의 글, 160-164면 참조.

이처럼 기존의 논의들에서 제시된 이태준의 작품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유토피아’를 향한 추구는 이러한 대상의 실체가 전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간다면,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대상의 이면에 근본적인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놓여 있음을 읽어낼 때 그러한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가리는 이상적 대상을 구성한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해질 것이다.⁴¹⁾

구성된 이상향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이태준 소설의 ‘고전에의 지향성’은 ‘작위적’이라는 평가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에 따르면, 이태준은 생활의 차원, 열린 세계의 산문성을 지향하면 식민지 체제를 승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의 문장, 즉 산문을 쓰기 위해서 고전의 폐쇄성을 지향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고전에의 지향성은 자각적이고, 완결성을 기저로 한다.”⁴²⁾ 여기서 이태준이 상정하는 이상적 대상은 “그런 생활적인 것이 깡그리 제거된 자리, 즉 <비인 접시오 병>이다. 靜寂과 虛無이다. 그릇이나 병은 물건이지 蘭과 같은 생명체가 아니다. 한 순간에 정지된, 완결된, 폐쇄된 것일 뿐, 수정이나 보완이나 손을 댈 수 없는 세계”⁴³⁾이다.

물론 이러한 작위성은 해방 공간에서 그가 이데올로기를 선택하여 “유토피아를 얹혀놓았을 때” 지속해지며, 민중어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⁴⁴⁾ 그러나 이태준에게 있어 폐쇄되고 완결된 ‘유토피아’는 건드릴 수 없는 ‘이웃’의 괴물성을 가리기 위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성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대상은 말그대로 “비

41) 섬뜩함과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 달라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섬뜩함은 언제나 이데올로기 내부에 걸려 있다. 이데올로기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섬뜩함을 통합하고, 견딜 만하게 만들며, 그것의 자리를 배당하려는 사회적 시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섬뜩함을 또 다른 내용으로 축소하거나 그 내용을 의식적이고도 명시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데올로기 비판 역시 똑같은 틀에 사로잡히고 말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어떤 사물들을 고정시켜 그에 적합한 이름을 주거나,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억압된 것의 의미를 회복하거나 해서 결국은 섬뜩함을 제거하려는 소박한 노력에 임하고 있다.” 플라텐 달라르, 복도훈 옮김, 『나는 네 첫날밤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캉과 섬뜩함], 『자음과모음』 27, 자음과모음, 2015, 315면.

42)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172면.

43) 위의 책, 173면.

44) 위의 책, 175면.

인” 것이며 “허무” 그 자체로서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태준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공동체를 향한 추구하고 시도들 또는 온전한 관계의 성취와 실패들은 ‘이웃’으로서의 타자의 심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는 섬뜩한 타자와 적절한 거리를 형성하고 안정된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과 같다. 바꿔 말하면, ‘저 너머’의 대상을 향한 욕망의 시나리오를 상연하는 상징적 타자로서의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다.⁴⁵⁾

4. 나오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이태준 소설에서 나타나는 ‘이웃’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태준 소설에서의 ‘이웃’은 일종의 ‘동류 인간’으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여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대상만이 아니다. 그의 소설에서는 의미화할 수 없는 ‘이웃’의 형상이 증상처럼 등장한다. 이때 소설 속 인물들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이웃’을 인식하게 된다. 불가해한 ‘이웃’으로 인한 섬뜩함은 그들을 마주할 수 없게 하고, 소설 속 인물들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화하며 안정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

‘이웃’으로서의 타자에 대한 인식을 이태준 소설을 독해하는 출발점으로 설정할 때, 작가의 작품 전반에서 나타나는 이상적 대상에 대한 지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태준의 소설 속 인물들이 이상적 대상을 지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틀로서의 상징적 타자의 기능이다. 따라서 이태준 소

45) 다른 한편으로, ‘이웃’으로서의 타자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태준 소설을 바라볼 때, 작품에 나타나는 윤리적 주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가능해진다.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곧 주체성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된다. 타자의 심연을 마주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나 자신 안에 있는 나보다 더한 어떤 것을 마주하는 것과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인간적 성격에 대한 인식은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윤리적 책임과 구분된다. 무조건적인 윤리적 책임은 ‘이웃’으로서의 타자의 괴물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소설에서의 윤리성은 타자를 향한 연민 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비인간적인 지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진다. 따라서 타자성에 대한 논의는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읽어내는 논의로 심화할 수 있다.

설의 이상향은 작가가 추구하는 초월적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웃’으로서의 타자를 다루기 위해 요청되는 구성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태준 소설의 ‘이웃’과 타자성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관계와 거리를 그려내는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적 논리로 작용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다른 소설들을 비롯해 작가의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한 분석으로 나아간다면, 단편소설과 장편소설로 분리되어 논의된 경향이 강한 이태준 문학의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근 논의의 흐름에 발맞춤과 동시에 이태준 소설을 읽는 또 다른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Neighbor’ and the Otherness in Lee Tae-jun’s Novels

Heo, Jinhyuk(Kwangwoon University)

The pursuit of an ideal community is mentioned as part of the internal logic of Lee Tae-jun’s literature. This assumes others as ‘fellow humans’. However, in Lee Tae-jun’s novels, the figure of the ‘neighbor’ as the other appears symptomatically. The uncanny of the ‘neighbor’ points a fundamental otherness. The characters in the novels cannot encounter the ‘neighbor’. They attempt to maintain a distance. When based on the perception of the other as the ‘neighbor’, the utopia in Lee Tae-jun’s novels can be seen not as a transcendent object pursued by the author, but rather as a constructed object postulated to domesticate the ‘neighbor’.

Key words : Lee Tae-jun, Other, Neighbor, Monstrosity, Uncanny, Fantasy, Ideal object.

[참고문헌]

■ 기본자료

이태준, 상허학회 편, 『이태준 전집』 1-4, 소명출판, 2015.

■ 단행본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백상현, 『라캉의 인간학』, 위고, 2017.

에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옮김, 『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8.

에마누엘 레비나스, 김도형·문성원 옮김, 『타자성과 초월』, 그린비, 2020.

슬라보예 지젝, 정혁현 옮김, 『이웃들과 그 밖의 괴물들』, 『이웃』, b, 2010.

슬라보예 지젝, 박정수 옮김,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그린비, 2009.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3.

지그문트 프로이트, 정장진 옮김, 『예술, 문학, 정신분석』, 열린책들, 2020.

Jacques Lacan,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Dennis Porter,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VII: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New York: Routledge, 1992.

■ 논문 및 기타 자료

공종구, 「이태준의 지식인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김기림, 「스타일리스트 이태준 씨를 논함」, 『조선일보』, 1933.06.25.-27.

김준현, 「해방이라는 한국문학연구의 ‘경계’와 이태준 - 해방 이후 이태준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김진규, 「이태준 단편소설 속 타자성 인식의 한계 — 「달밤」·「손거부」·「장마」·「쾌장랭」·「석양」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7,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김택호, 「계몽성과 통속성이라는 핵심어 근처에 머물기 -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사 검토」, 『상허학보』 42, 상허학회, 2014.

김택호, 「이태준 문학과 이상적 공동체주의」, 『상허학보』 29, 상허학회, 2010.

박수현, 「이태준의 민중 형상화 방식과 자아상 - 해방 전 단편소설과 『사상의 월야』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백철, 「문장과 사상성의 검토 -내가 쓰는 작가 이태준론-」, 『동아일보』, 1938.02.15.-16.

서영채, 「두 개의 근대성과 처사 의식 - 이태준의 작가 의식」, 『상허학보』 1, 상허학회, 1993.

- 양윤모,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소설적 형상화: 이태준의 『농토』를 대상으로」, 『한국융합인문학』 9(3), 한국융합인문학회, 2021.
- 우정덕, 「이태준 작품에 드러난 자기상과 그 결락 - 수필집 『무서록』과 『심경소설』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2011.
- 이도연, 「이태준 단편 연구」, 『어문논집』 45, 민족어문학회, 2002.
- 이민정, 「이태준 소설의 토포필리아와 타자성 고찰 -1930년대~194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 임세화, 「해방기 북한 토지개혁 소설의 욕망과 농민해방 -토지개혁 초기 소설들에 기입된 서사적 공백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7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 장성규, 「이태준 문학에 나타난 이상적 공동체주의 -오스키 사카에, 우치무라 간조와 『성서조선』 그룹,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3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 조영실, 「근대 주체의 위치와 변용 양상」, 『구보학보』 6, 구보학회, 2010.
- 조영추, 「정치적 유토피아와 전통지향적 미학의 이합(離合)관계: 이태준의 소련·중국 기행문과 소설 『먼지』 겹쳐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71,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 조형래, 「이태준의 성복동: 이태준의 단편소설 및 『무서록』에 나타난 ‘교외’와 ‘구석진 곳’의 의미에 대하여」,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 조형래, 「단편, 스타일, 사상 - 이태준 단편 소설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역사적 검토」, 『한국문예창작』 20(3), 한국문예창작학회, 2021.
- 블라덴 돌라르, 복도훈 옮김, 「“나는 네 첫날밤에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캉과 섬뜩함」, 『자음과모음』 27, 자음과모음, 2015.